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 학교 · 공공급식 위한 안정적 공급 거점시설 확보... 84개교 3만850명 먹거리 책임

익산시 학교·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가 본격 운영을 일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정현을 시장, 최종오 시의회 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달 31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농민단체 및 농민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는 지난해 농식품부 국비 APC 지원사업 및 저운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7억원으로 한양을 다송리 880-1 일원에 연면적 2,584㎡, 총 3개 동 규모로 준공됐다.

농산물 집하·소분·포장·전처리시설 및 사무공간을 갖춘 주 건물들과 별도의 저온저장고동 및 안전성 분석실을 갖췄다.

시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을 통한 안정적 급식 거점시설 확보로 지역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센터는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84개교 3만850명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및 로컬기공품 등을 납품 중이다.

그간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한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식재료 전 품목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돼 농촌학교 학생들의 먹거리 불평등이 해소된

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을 발굴·확대하여 농가에게는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지역 학생의 건강증진과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2023년 학교·공공급식의 (제)간지역체제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 20여 농가를 조직화했다. 수발수 및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물류배출, 안정성 관리, 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모집 등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로 올 3월 완전 지역 운영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정현을 시장은 "학교급식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해갈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농민회가 주최하는 2023년 영농발대식이 지난달 31일 정현을 익산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농민단체 및 농민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 '농도 익산, 풍년을 기원합니다'

### 익산시농민회 영농 발대식

익산시농민회(회장 김영재)는 농도 익산의 풍년을 기원하는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농민회가 주최하는 2023년 영농발대식이 지난달 31일 농민단체 및 농민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현을 시장, 최종오 시의회의장 김수홍·한병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하인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농민회 인사 및 농민 단체장들이 참석해 더욱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영농 준비를 다지기 위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고사에 이어 다양한 문화공연과 뒤풀이 순으로 진행됐으며, 목판

시연 등의 상설 행사도 마련돼 즐길 거리를 더 했다.

이번 행사는 농도 익산의 미래를 이끌 마을전자상거래 디지털 유통 체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개소,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유치 성공 등 익산 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자부심을 키우는 자리가 됐다.

김영재 익산시농민회 회장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영농발대식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한다"며 "자연재해 없이 무탈한 한 해가 되어 행복한 농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행사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며 서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주택공급 계획 '안정적' 추진 탄력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익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등 익산시 주거공급 주민설명회가 뜨거워 관심을 모았다.

시는 지난 3월 31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용역기관 (주)어울림엔지니어링 노수일 책임기술자로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안 보고 (사)지역개발학회 단국대 홍경구 교수로부터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분석한 홍경구 교수는 "2020년 이후 민간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되자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익산시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을 전면 분석했다"며 "2030년까지 전복 평균인 110% 수준까지 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예정된 주택 수급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건설 2만9천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며 "시의 주택 수급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는 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오는 10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안정된 주택공급조절 및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불법어선 단속 미래 어족자원 지켜'

### 군산시의회 서동완·이한세 의원, 실범장어 불법조업 실태 점검

군산시의회 서동완·이한세 의원이 실범장어 불법조업 실태 파악을 위해 군산 내항을 방문하고 집행부에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실범장어 불법 어업은 매년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금강하구에서 기승을 부린다. 본 어업은 폐어선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행 어선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놓는 방식으로 선박 통행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모기장과 같은 좁은 세목망 사용으로 실범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와 알 등 어족자원까지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해마다 전라북도·서해어업관리단·시·해경 등이 실범장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범장어는 양식이 되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는 탓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한세 의원은 "실범장어 불법 어획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구둑이 생긴 후 수로가 좁아져 실범장어가 허가구역보다는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



문에 불법 어업이 성행하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게 되면 풍토로 정착될까 우려스럽다"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법, 조업하는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불법 어선이 먼 바다에 있다면 접근성이 어려워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며 "앞으로는 단속이 몇 척 잡았다기보다는 불법어업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단속 실적 몇 퍼센트 늘리겠다는 통계를 해마다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대규모 국제·전국대회 준비 '착착'

###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추진 상황 보고회

익산시가 대규모 국제 및 전국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전대식 부시장을 주재로 유관 부서, 익산시체육회, 익산시장에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및 제2회 전국아울림생활체육대축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국

제규모 생활체육대회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익산에서는 육상 등 8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6월에 열리는 제2회 전국아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비상하라는 취지로, 하차되는 대축전이라는 표어 아래 총 8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는 △방문객 관광 활성화 방안 △주차 및 교통대책 △의료 및 안전관리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정보통신 시설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등 각 부서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시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외식·숙박 업소와 친절 MOU를 체결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전대식 부시장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신 선수단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포츠명품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화 방안 △주차 및 교통대책 △의료 및 안전관리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정보통신 시설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등 각 부서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시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외식·숙박 업소와 친절 MOU를 체결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전대식 부시장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신 선수단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포츠명품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4월부터 체험 프로그램 본격 운영

군산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이 오는 4월부터 2023년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체험관은 올해 유·초등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 교원 연수용 정규 운영 프로그램과 기후행동 캠페인, 그 외에도 교육신청 건에 대해 운영하는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초등 체험프로그램은 매주 수·금요일 오전 체험관에 방문하는 민3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시간의 관

람해설과 30분의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은 군산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물, 자원순환, 해양쓰레기, 신재생에너지의 5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강사가 신청학급에 방문해 5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주변 숲 체험을 과정에 추가해 지난해까지 4회차까지 진행하던 수업을 5회차로 확대했다.

찾아가는 중등 미래교실은 주제 선택 활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체험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해 기후행동 실천 방법을 홍보하고, 오는 6월 환경의 날과 9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 각 학교 환경동아리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람해설과 30분의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은 군산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물, 자원순환, 해양쓰레기, 신재생에너지의 5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강사가 신청학급에 방문해 5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주변 숲 체험을 과정에 추가해 지난해까지 4회차까지 진행하던 수업을 5회차로 확대했다.

찾아가는 중등 미래교실은 주제 선택 활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체험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해 기후행동 실천 방법을 홍보하고, 오는 6월 환경의 날과 9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 각 학교 환경동아리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김진곤 호남향우연합회장 군산에 고향사랑기부금

서울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 회원 150여명이 1일 군산을 방문했다. 이번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 회원의 군산 방문은 지난 1월 군산 출신 김진곤 연합회장이 15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향우회원들의 단합과 애환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고향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며 김진곤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군산 방문을 환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진곤 연합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는 94년 창립 이래 강서구 호남인을 대표하는 향우회로서 호남 발전을 아낌없이 지원해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격년에 한 번 취임회장의 고향을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 이후 회원들은 근대역사박물관, 산업도야은 파우워 등 주요 명소를 관광하며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실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부가 개정돼 4월부터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임차인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임차인들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예정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군산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바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4월 매 주말 '시민 힐링 버스킹'

4월 시간여행마을과 경양동 철길마을에서 노래와 춤이 어울린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군산시는 4월 한달 간 주말마다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리의 풍광이 버스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 공연은 지역 청년 버스커들과 군산시간여행축제 밴드 서포터즈들이 꾸리는 봄에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채워진다.

구체적 일정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말마다 초원시민관 야외무대와 경양철길 마을 내에 매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공연이 펼쳐진다.

거리의 풍광이 버스킹 공연이 열리는 초원시민관은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촬영지로 경양철길마을은 7080 레트로 문화를 느껴 볼 수 있는 군산의 대표 관광 명소다. /군산=이재춘 기자